

해외 원조 활동으로서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방안 - 우간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Music Educational Contents as Overseas Aid Activities in the case of Uganda

최은아* · 양병훈**

Euna Choi · Byoung Hun Yang

초록 민간 차원 해외 원조 활동으로서의 교육콘텐츠 개발은 빈곤 국가나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위하여 수업지도안, PPT,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지향하는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음악교육이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빈곤 국가 중 우간다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우간다에서의 현지 적합성, 학생의 정서적·사회적 발달, 교사의 교수역량 및 학생의 주도적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간단한 선율 및 형식의 노래와 놀이 활동, 신체 타악기나 주변의 사물을 활용한 연주 활동, 영상 중심 콘텐츠, 수업 흐름의 구체적·단계적 제시 등을 기본 방침으로 16차시의 음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콘텐츠를 보급·확산하기 위해서는 우간다 현지 교사 연수 실시와 네트워크 형성, 기자재 지원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해외 원조 활동, 음악교육 콘텐츠, 우간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 형평성

Abstract Developing educational contents as overseas aid activities at the civilian sectors means creating lesson plans, PPTs, videos, etc. for students in poor countries or underprivileged areas. The development of music-educational contents is meaningful as a way for music education to contribute to the educational equity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im to achiev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music-educational contents for primary school students in Uganda, on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e focused on local appropriateness in Uganda,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of students, and support for teachers' teaching capacity and students' initiative. We developed the 16 sessions of the music education contents based on songs with simple melodies and forms, play activities, alternative instrumental activities using body percussion or surrounding objects, video-centered contents, and specific and step-by-step guidance of the lesson process. In order to distribute and spread the developed music-educational contents, it is necessary to do continuous effort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uch as conducting teacher training, forming networks, supporting equipment, and build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Key words: overseas aid activities, music educational contents, Ugand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educational equity

* First author, E-mail: eahchoi@jnu.ac.kr

Professor,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0 Seohak-ro, Wansan-gu, Jeonju, Jeonbuk,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angokie@naver.com

Teacher, Narul Elementary School, 260, Deokpungbuk-ro, Hanam, Gyeonggi, Korea

I. 서론

선진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개해온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최근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세계의 빈곤 문제 및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일방적 공여를 넘어 선진국과 개도국, 개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차원의 협력적 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국가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에 취약계층의 보편적 교육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력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 유엔은 세계교육포럼의 공동교육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고, 17개의 목표 중 4번째에 해당하는 교육 분야의 발전 목표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명시하였다.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양적 성장에 집중하였다면, SDGs에서는 교육의 질적 측면과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 달성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서 다양한 해외 원조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2021년에는 SDGs 달성을 위한 중장기 ODA 계획으로써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다(KODA, 2021). 여기서는 ‘포용적 ODA’라는 전략 목표 아래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점 과제를 두어 교육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격교육 기자재 지원, 교원 ICT 활용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여국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기본권 강화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이다.

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점에서 이에 참여하는 민간의 역할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의 원조 활동은 주로 학교 설립, ICT 기자재 보급 사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나 기업 수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민간 차원의 해외 원조 활동은 기부 또는 장단기 해외 봉사 활동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활동 비용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성한(Kim, 2020)이 제안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콘텐츠 개발은 직접 해외로 나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예비교사나 현장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해외

원조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적절한 양질의 교육콘텐츠가 제작되어 빈곤 국가에 보내진다면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형식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거나 아예 학교 가기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 또 수업 역량이 부족한 현지 교사 및 소외지역의 학교 등에 두루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포용성에 기반한 교육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SDGs 달성을 부합하는 방향이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원조 활동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교육콘텐츠 개발은 최빈국 중 하나인 우간다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제 교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Kim, 2022). 반면 음악 교과에 대한 콘텐츠는 거의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간다에서 음악 교과는 필수교과가 아니기에 몇몇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빈곤 국가일수록 음악과 같은 예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학교 교육에서 이를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음악은 감정의 느낌과 표현, 공감과 소통, 소속감 및 공동체 결속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기에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나 많은 학생이 아동 노동, 조흔 풍습 등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우간다의 상황을 돌아볼 때, 학교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에 필요한 정서적·사회적 발달과 공동체에서의 소속감을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간다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해외 원조 활동으로서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사업의 배경과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및 의의를 살펴본 후, 음악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방안과 함께 개발 개요를 예시하고 보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사업의 배경

1.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해외 원조 활동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를 통해 국제사회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기본 철학은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것이다. 이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총 17개의 목표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교육 분야 목표(SDG 4)도 예외는 아니다(Ahn et al., 2020). SDG 4의 포괄적 목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증진”(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6)이며, ‘포용적(inclusive)’, ‘공평한(equitable)’, ‘모두

를 위한(for a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교육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다섯 번째 세부 목표인 SDG 4.5는 교육 형평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보장한다(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6, p.29).

이를 살펴보면, SDG 4.5에서는 SDG 4의 포괄적 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의 대상을 여성, 장애인, 토착민 등 모든 '취약계층'으로, 또 '형평성'의 내용을 '교육 · 훈련'의 접근성 보장'으로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SDG 4.5는 모든 취약 계층에게, 모든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그 핵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SDGs의 이행 방안으로서 SDG 4.5에 기초하여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Ahn et al., 2020). 첫째, 개도국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시설 및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업 성취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교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의 교육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하여 해당 정부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넷째, 수원국의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인력의 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교차성과 전체 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SDGs 목표 달성을, 특히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개발협력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반영할 때 교육 분야 해외 원조 활동의 효과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2. 우간다의 일반적 교육 상황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그 역할과 힘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빈곤 국가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에 비해 최빈국의 수가 많고, 그중 우간다는 2023년 기준 1인당 GDP가 총 195개국 중 171위로 최빈국에 속한다(IMF, 2023). 장혜승(Jang, 2011)과 서은영(Suh, 2019)에 따르면, 우간다의

경우 1997년부터 시행한 초등교육 보편화 이후 학생 수의 급작스러운 양적 팽창으로 인해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예컨대 교과서 및 기본적인 수업 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나 수도 시설 및 화장실 부족 등 열악한 교육 시설로 인해 비효율적·비교육적 수업이 만연하다. 낮은 급여 및 처우에 기인한 교사의 수업 역량 부족과 사회적 인프라의 미비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또한 생계 유지를 위한 아동 노동이나 조흔 풍습 등에 기인한 낮은 상급학교 진학률 등의 문제도 있다.

우간다 정부는 2007년 ‘30년 내 소농 기반 국가에서 번영하는 현대 국가로의 전환(A Transformed Ugandan Society from a Peasant to a Modern and Prosperous Country within 30 years)’을 목표로, 30개년 국가개발계획인 ‘Uganda Vision 2040(이하 Vision 2040)’을 선포하였다(Jeon, 2019). 이 중 5년 단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s)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제2차 국가개발계획 2015/16-2019/20(이하 NDP II)에서는 근대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중점 사업으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발표하였다. 이는 교육을 통해 전반적 교육력 향상 및 고급 인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NDP II의 교육 분야 중점 전략으로는 영·유아교육, 초·중등 학생 및 특히 여학생의 학교 중퇴율 감소, 초등학교 졸업 후 중등학교로의 진학률 제고, 학교 정기감사 및 커리큘럼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기술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Jeon, 2019, Requoted from p. 5).

정부가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역 편차, 높은 중퇴율 및 유급률, 이로 인한 낮은 교육 성취도 등은 우간다 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남아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보편적 초등교육은 물론 중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무색하게도 실제 재정지원은 등록금 면제에 제한되어 초등교육 수료율 및 중등교육 진학률은 높지 않다(KODA, 2016). 급증하는 우간다 인구 및 주변 국가 난민 유입으로 교육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 부문 예산은 불충분하다. 학교들은 부족한 재원 충족을 위하여 학부모에게 학비 및 기타 물품을 요구하기에 부모가 학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고, 결국 수많은 학교 밖 아동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교육 문제들은 비단 우간다뿐만 아니라 빈곤 국가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수준의 공적 개발 차원에서 NDP II에 의거한 교육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우간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Vision 2040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교육은 중점 협력 분야로서, 직업 훈련 교육을 통한 기술 인력 양성, 교사 역량 강화 및 기초교육 향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제고,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기초교육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배양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KODA, 2016). 그러나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공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우간다의 경우, 보편

적 초·중등교육 실시로 등록률 제고 등 양적인 개선을 이뤘음에도, 본질적으로 교육 전반에 걸쳐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 차원에서도 시민사회·지역사회·학교의 연합 등 다양한 주체와의 실제적인 협력을 통해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 성과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콘텐츠 개발 활동의 개념 및 의의

교육콘텐츠 개발 활동이란 제3세계 국가의 교과서를 국내로 가져와서 이를 예비교사, 현장 교사 또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등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안, 영어 스크립트, PPT, 그리고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해당 국가로 보내 필요로 하는 곳에 보급하는 사업을 뜻한다(Kim, 2020, p. 222). 이러한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교육 분야의 해외 원조 활동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봉사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해외 원조 활동으로서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세계 국가가 치han 교육콘텐츠의 양적, 질적 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교육 발전에 일조하고 소외지역 아동들에게 새로운 교육 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복잡한 장비 없이도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기존에는 교사의 역량 부족 문제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학습자-교육매체 간 상호작용이 증대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와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저비용·고효율의 특성을 보임으로써 봉사자가 직접 봉사를 떠나는 활동 못지않은 가치를 가지며, 봉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육적·사회적 기여의 긍정적 경험은 나눔 실천의 의미를 스스로 되새기게 한다.

교육콘텐츠는 교육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빈곤 국가,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 소외지역의 교육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써 적절하고 유용하다. 교육콘텐츠를 통해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및 교육에의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고, 보다 지속가능성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SDG 4.5가 추구하는 교육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은 이를 위한 하나의 실천 전략으로서 적합한 활동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교육콘텐츠 활용 수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빈곤 국가가 안고 있는 열악한 교육 상황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작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김성한(Kim, 2020; 2022)은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우선

적으로 적용할 수원국으로서 우간다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9년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전북 지역의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들이 개발 주체로 참여하였으며 우간다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대상의 영어, 수학, 과학 교육콘텐츠 200여 개를 제작하였다. 이는 2023년 1월부터 우간다 내 협력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피드백 및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여러 명이 동시에 시청 가능한 동영상 형태의 교육콘텐츠를 통해 교과서 없이도 더 많은 아동이 보충학습 및 반복 학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현지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양질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흥미 유발 및 학업 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 수업의 질이 개선될 수 있었다. 더불어 수업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현지 교사의 부담을 덜고, 오히려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된다면 우간다에 만연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의 필요성

1. 음악교육 분야의 해외 원조 활동

그동안의 교육 분야 해외 원조 활동은 ODA 차원에서든 민간 차원에서든 소위 ‘주지 교과’ 중심의 기초교육 또는 과학 기술교육·직업 기술교육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Jeon, 2019). 이는 수원국 국민의 빈곤 및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해 및 수리 교육, 생계 기술교육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문해력 및 수리력 등 학습 성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기초교육을 증진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 훈련 교육을 통한 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적자원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교육콘텐츠 또한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지 교과 중심이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꾀하는 자생적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특히 여러 예술 영역 중 음악은 개개인의 감수성 및 창의성을 신장시키며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를 계승하거나 정착·확산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기에 교육적 당위성을 가진다. 즉 음악교육은 개인의 삶,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교육의 기능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빈곤 국가, 그중에서도 교육 소외지역에서는 음악교육과 같은 예술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강제된 사회적 배제¹⁾’의 문제가 나타난다(Choi et al., 2010).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 또한 인간다운 삶의 기본 요소임에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은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과 자립 능력 향상의 촉매제로서, 또 문화적 역량 및 자긍심을 함양하고 문화정체성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2020). 또한 교육을 통한 음악 활동의 활성화는 문화예술 향유를 촉진하여 정서적 빈곤 해결과 창의성 함양을 가능하게 하고, 예술적 창조와 생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져온다. 장기적으로 문화 보존 및 증진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이 심어 주는 영적인 풍요로움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문화를 추구하는 정신은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Lee, 2020, Requoted from p. 50).”라고 한 ‘엘 시스테마(El Sistema)’의 창설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é Antonio Abreu)의 말을 되새겨 볼 만하다.

따라서 음악교육 분야의 원조 활동을 통해 음악교육에 대한 빈곤 국가 아동들의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교육적 기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에 국가, 기업, 민간 단체 등 각 주체는 수원국에서의 음악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가치를 인식하고, 각 역할에 따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음악교육 원조 활동에 대한 논의 및 실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박주원(Park, 2022)은 아프리카 르완다 대상의 음악교육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면서 음악교육 분야 ODA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 음악공통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예술교육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및 투입이 원조의 효과성을 좌우한다. 셋째, 음악교육 분야 공적 개발 원조에서도 온라인 및 미디어를 활용하여 개도국 교육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다수에게 일정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도상국 국민의 문화 접근 및 향유를 위한 음악 환경 및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발도상국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음악 연수 실시 등은 예비 교사들의 음악적 동기유발 계기가 된다. 음악교육 분야에서의 해외 원조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우간다의 음악교육 상황

우간다의 음악교육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왜냐하면 우간다에서는 음악교육이 아직

1)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 향유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상태를 말한다. 빈곤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배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문화적 배제로 확대된다(Choi et al., 2010, p.304).

보편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2010년 우간다 교육체육부가 제시한 초등학교 교육 과정(UGANDA MoES, 2010)을 살펴보면 음악은 ‘공연 예술과 체육(Performing Arts and Physical Education, PAPE)’의 하위에 속해있다. 교육과정 상 초등학교에서 공연 예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음악은 필수과목이 아니다 보니 음악 수업의 중요성은 쉽게 경시되며, 체육과 신체활동을 수반한다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음악을 체육활동으로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간다 음악교육의 저해 요인으로 전문 음악 교사의 부족, 음악 교사를 위한 교육 시스템 부재, 음악 교육과정 내용의 현실적 구현 가능성 부족, 국제학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교에 음악 시설 부재, 음악 교과서 부재, 음악교육 자원 부족, 충분한 악기 부족, 음악교육을 위한 연구 및 연구 시설 부족, 이를 위한 예산 부족 등이 있다(Kigozi, 2008). 기본적인 교육 환경 자체도 열악한데, 여기에 음악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실까지 맞물리다 보니 음악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음악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수도에 있는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외국의 커리큘럼을 따라 음악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일반 학교에서는 학교 관리자가 인지 능력 개발 관점에서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음악 수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일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음악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에서의 엘리트 음악교육과 일반 공교육에서의 음악교육 부재로 인해 생활 수준에 따른 음악교육 혜택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렇듯 우간다에서는 음악교육이 저평가되고 있으며, 빈곤 국가 안에서도 특히 저소득 층일수록 음악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은 국가와 지역, 계층의 장벽을 뛰어넘는 만국 공통의 언어로서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음악 활동 경험은 개인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크게 기여하므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Esom Music School의 이사인 Kiyega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큰 울림을 준다(Katongole, 2020).

수도 캄팔라 주변에서는 클래식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음악 학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음악교육은 여전히 사치품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수업료를 개인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한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음악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악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중략) 음악 커리큘럼의 내용은 학교의 자원과 유능한 교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학

교마다 크게 다릅니다. 많은 학교에서 전문 지식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음악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Kyambogo University 음악 및 공연 예술 학과장인 Solome Katasi는 음악이 사회의 “생명의 혈통”이며, 중등학교 및 고등교육 기관을 위한 음악 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우간다의 풍부한 음악과 문화를 홍보하는 열쇠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Katongole, 2020). 이들의 생각은 우간다에서 보편적 음악교육 및 이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볼 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활동은 우간다의 음악교육 정착 및 보편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간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음악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음악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우간다 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도 음악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교사들에게 음악교육 콘텐츠는 음악 커리큘럼이자 교과서의 역할을 대신하며, 음악의 교육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음악교육 분야에서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실천 전략으로서 가치 있는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더욱이 이미 우간다를 대상으로 타 교과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한 선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음악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의 음악교육 상황을 이해하고 음악 교과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방안

1.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

앞서 살핀 우간다의 음악교육 상황 및 음악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장에서는 우간다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및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개발 개요를 예시하고자 한다.

1) 개발 방향

음악교육 콘텐츠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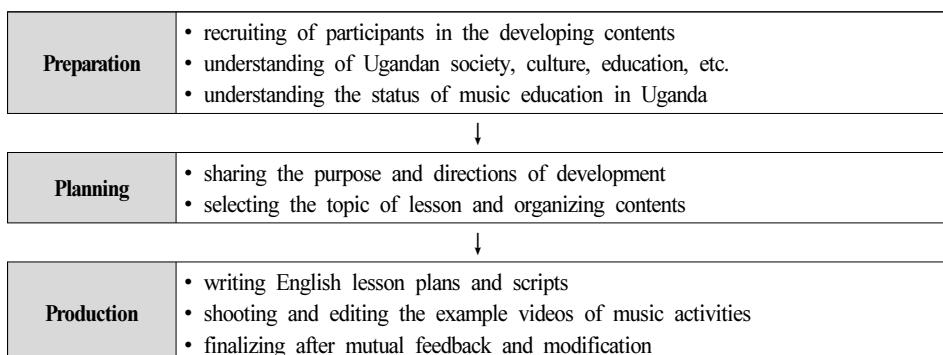
첫째, 현지 문화 및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현지화된 음악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현지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둘째, 학생의 음악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한다. 음악 활동의 과정에서 음악적 소통 및 교감, 성취감, 협력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한다.

셋째, 교사의 음악교수역량 및 학생의 주도적 활동 참여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 및 제작한다. 이로써 음악 교육적 경험 부족 및 인적·물적 자원의 부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개발 절차 및 주체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절차는 크게 ‘준비-기획-제작’의 세 단계를 거치며, 단계별 세부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Process of developing music-educational contents for Ugandan students

특히 콘텐츠 개발 주체와 관련하여 교육 분야의 여러 종사자 중 현직 교사의 참여를 고려한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급 인적자원으로,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과 실제로 마주하며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이미지(Lee, 2013)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분야의 해외 원조 활동에서는 교사를 교육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교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콘텐츠 개발·제작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교사의 참여는 콘텐츠의 질적 측면에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에 따라 콘텐츠를 수월하

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례로 이전에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영어, 수학, 과학 교육콘텐츠의 개발에 다수의 현직 초등교사가 참여하였다(Kim, 2022).

음악교육 콘텐츠라는 측면에서는 음악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안목을 갖춘 교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음악 교과 중심 교수학습공동체, 음악수업연구회 등 학교 현장의 실제적 음악 수업 연구 및 발전에 힘쓰고 있는 현직 교사 모임의 자발적 참여를 제안할 수 있다. 모임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역할 분담을 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적절한 음악 수업 소재를 선정하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활동 및 내용을 구성하는 것, 음악 활동 예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 등 기획 및 제작 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게 된다. 이와 같은 현직 교사들의 참여와 협업은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음악교육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인 한편 콘텐츠 개발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3) 내용 구성 방침

교육콘텐츠 개발 활동의 기본 취지는 해당 국가의 교과서(교육과정)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간다에서는 보편적 음악교육의 체계가 자리 잡히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에 음악 교과서가 보급되어 있지 않고, 음악 수업을 위한 교실 환경 및 자원, 교사의 교수역량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및 개발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설정한 음악교육 콘텐츠의 내용 구성 방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쉽고 간단한 선율 및 형식으로 된 노래를 주요 소재로 삼는다. 노래 부르기는 음악 수업을 위한 교실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음악 활동이다. 별다른 악보 없이도 듣고 따라 부르거나 외워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노래를 활용한다면 이후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확장하기에 용이하다. 이는 음악 교과서의 부재로 음악 수업 소재를 선정하기 모호한 우간다의 상황에, 또 음악을 ‘수업’으로써 만나는 경험이 적은 우간다의 교사 및 학생들에게 적절한 접근 방식이다.

둘째, 노래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식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학생들은 노래와 함께하는 음악 놀이에 몰입하며 즐겁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듬, 가락, 화음 등 기초 음악 요소를 감지하고 발견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공동체 음악 놀이를 활용한다면, 음악적 상호작용 및 교감을 통해 음악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는 우간다 학생들이 음악적 · 사회적 · 정서적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자극이 될 것이다.

셋째, 특정 악기를 사용하는 활동은 지양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한 연주 활동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이는 일반 학교에서 민속 타악기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이 연주할 악기가 부족한 현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노래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활동의 경우 신체 타악기(손뼉치기, 무릎치기, 발구르기 등)나 주변의 사물(돌멩이, 책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주해보도록 한다.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의 보급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고려해 볼 문제이겠으나, 꼭 실제 악기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체하여 연주해보는 것은 다양한 음악 표현 방식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음악 활동의 실제 예시 모습을 보며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한다. 실제적·상호작용적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교과의 특성상 부연 설명을 많이 늘어놓기보다는, 직접 노래하고 춤추며 활동하는 실제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이를 직관적으로 따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설명이나 발문은 간결하게 처리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영어 자막을 활용하고, 영상 콘텐츠 외에도 교사의 전반적 수업 이해를 돋기 위한 수업지도안을 함께 제공한다.

다섯째, 음악적 교수역량이 낮은 교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의 흐름을 구체적·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우간다에서는 음악이 필수교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교사 개개인이 가진 음악적 역량과는 별개로 음악 수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만으로도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영상 속에서 교사-학생의 역할을 함께 보여주고, 활동 방법 또한 구체적·단계적으로 안내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는 음악 수업에 대한 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음악교수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교수법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촉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4) 개발 개요 및 콘텐츠 예시

이에 기초하여, 8명의 교사(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온음’ 소속 초등교사)와 협업을 통해 우간다 초등학교 4~5학년 대상으로 제작한 16차시 음악교육 콘텐츠의 개발 개요는 <Table 1>과 같다.²⁾

2)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음악교육 콘텐츠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온음’ 소속 교사 8명과 함께 2023년 1월 5일부터 17일까지 우간다의 초등학교 3곳을 방문하였다. 교육콘텐츠 활용 시범 수업을 진행한 결과, 현지 학생들은 음악교육 콘텐츠에 흥미를 보이며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연수 및 간담회,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또한 음악 활동 예시 영상이 학생의 이해를 돋는 효과가 있고, 필요한 경우 멈추거나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래를 다시 익히거나 놀이 활동 방법을 재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과성 검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도록 하겠다.

<Table 1> Outline of the development of music-educational contents for Ugandan students

No.	Song	Main activity	Musical element
1	Engine Engine Number 9	Doing Bodily expression with steady beat by various speeds	Rhythm
2	Freddy Oka	Singing while playing hand-clapping game with steady beat	
3	If You Are Happy	Doing Bodily expression with various emotions	
4	Jambo	Playing and making various rhythms by body percussion	
5	Little Star	Playing various rhythms by tapping desk	
6	Obwisana	Singing while playing stone-passing game with steady beat	
7	Old King Glory	Singing while circle walking game with steady beat	
8	Piki Now	Singing while playing hand-clapping game with steady beat	
9	Tue Tue	Playing various rhythms by body percussion, rhythm syllables	
10	Arirang	Singing while playing melody relay game	Melody
11	Do-Re-Mi Song	Singing and learning solfège with Kodaly hand signs	
12	Funga Alafia	Singing while doing some various movements	
13	Dynamite	Doing a cappella with feeling the harmony	Harmony
14	Laughing Singing	Singing a round song with feeling the harmony	
15	Sally Go Round the Sun	Singing a round song with circle walking game	
16	The Lion Sleeps Tonight	Doing a cappella with feeling the harmony	

이상의 16개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3가지 개발 방향과 5가지 내용 구성 방침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예컨대 간단한 선율과 형식으로 된 노래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들이 듣고 따라 부르며 반복적으로 익혀 이후의 놀이 활동에 자연스럽게 활용함으로써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노래를 부르며 놀이 활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신체 타악기나 주변 사물을 활용하여 리듬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콘텐츠는 예시 활동 장면을 담은 동영상 형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다만 노래 선정 시에는 우간다 현지 민요나 놀이요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우간다가 부족 중심의 국가여서 우간다 내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불리는 노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 활동의 취지상 여러 지역의 학교 및 시설에 보급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보편적으로 쉽게 부를 수 있을 만한 노래를 선정하였다.

이처럼 콘텐츠별 주제 및 활동은 다채롭게 전개되며, 이를 통해 음악을 구성하는 기초 요소인 리듬, 가락, 화음을 관련된 내용을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지하고 표현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개발 개요에 따라 제작한 수업지도안, PPT, 동영상 일부를 예시하면 <Table 2>, [Figure 2], [Figure 3]과 같다.

<Table 2> An example of lesson plans

Lesson Topic		Engine Engine Number 9	
Objective		Keep a steady beat at a different tempi	
Note	Have the students to feel and express a steady beat in various ways. If there isn't a train whistle, making a 'choo-choo' sound can be good.	Musical element	Rhythm
Learning process	Activities		Time
Activity 1	[Activity 1 : Listen to the 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swer the questions: Have you ever been on a train? How do trains move? - Listen to the story of 『Engine Engine Number 9』, thinking of the movement of train. 		5'
Activity 2	[Activity 2 : Keep a steady beat with the rhy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eak and repeat the chant "Engine Engine Number 9". - Speak the chant, clapping/ tapping the knees / stomping to a steady beat.(Various body percussion can be used.) - Speak the chant, mimicking the wheels of a moving train with both arms. - Line up and speak the chant while moving like a train to a steady beat - Move to a steady beat accurately after listening to handdrum sound. 		5'
Activity 3	[Activity 3 : Play the game with different tem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cher will blow train whistle or speak 'choo-choo' several times in four beats. - Find the difference in change of the tempo. - Pick a leader and move to a steady beat accurately after listening to the changed tempo of train whistle or choo-choo sound in four beats. 		5'



[Figure 2] An example of PPTs



[Figure 3] An example of video clips

2. 음악교육 콘텐츠 보급 방안

교육콘텐츠의 개발·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의 보급·활용이다. 음악교육 콘텐츠의 보급은 일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방과 후 학교 또는 학교를 아예 가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난민촌, 고아원 등 교육 소외지역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된 콘텐츠가 가능한 많은 곳에 보급되어 적절히 활용된다면 음악 수업에 대한 우간다 교사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사 연수 및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 도모

교육 실행의 주체는 교사이며, 교사 교육은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콘텐츠가 실제로 활용되고 보급 및 확산되기 위해서는 현지 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교사 스스로 콘텐츠의 필요성 및 유용성을 인식하고 실행방법을 익히도록 돋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교과서와 참고서가 부재한 열악한 현재 상황에서도 음악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며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점차 넓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콘텐츠 활용을 위한 기초 ICT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음으로써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활용 능력 또한 향상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연수 내용은 협력 시범학교의 관리자 및 선교사를 통해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나 시설의 교사 및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교사 교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교육콘텐츠와 더불어 이를 활용한 우수 수업 사례 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협력 시범학교를 거점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콘텐츠를 지원한 현지 학교·기관과 교류를 이어가며 정기적인 점검표 작성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합성, 유용성 및 활용성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다면 국내에서 콘텐-

츠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빈곤 국가에는 종교 단체나 구호 단체와 연결된 학교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단체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아 보급·확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駐)우간다 주재 한국 대사관, KOICA 등과 연계하여 교육콘텐츠 활용 수업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유의미한 접근이 될 수 있다.

2) 기자재 지원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우간다 현지의 불안정한 전력이나 기자재 부족 문제는 충분히 예상되는 어려움이므로, 콘텐츠를 활용할 장비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교육받기 어려운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만약 이 학생들이 다닐 학교에 최소한의 교육 인프라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애써 개발하고 보급한 콘텐츠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학교로만 한정된다면 애초에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 취지와 의도가 퇴색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지에서 교육콘텐츠를 보급·확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성한(Kim, 2020)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고비용이 아니면서 전기가 없어도 충전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뷔프로젝터인 스마트 뷔, 신용카드 크기의 리눅스 OS 기반 싱글보드로 이루어진 라즈베리 파이 PC, 뷔프로젝터 화면을 칠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칠판, 태양전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교실의 구성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펀딩을 통해 스마트빔과 라즈베리 파이 PC를 구입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만하다.

음악교육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음악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지에 부족한 악기 및 교구, 음악교육 관련 교재 및 악보 등 물적 자원을 후원받아 개발한 콘텐츠와 함께 전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우간다 내 음악 전문 교육기관과의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우간다 내에서 자체적으로 음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을 꾀할 수 있고, 음악 교수법에 대한 교사 연수 기회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음악교육적 이해도 및 주체적 수업 역량을 높이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 및 사업이 음악 교육콘텐츠를 단순히 보급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후속 과제로써 현지 교사 교육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민간 차원의 해외 원조 활동으로서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활동은 ‘일반 시민’인 한국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현지 선교사, 구호 단체, 보육 시설 등의 ‘지역사회’, 그리고 현지 교사 및 학교 운영자 등 ‘학교’와의 실제적인 협력을 통해 빈곤 국가 및 취약계층 아동들의 음악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빈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원조 활동으로서의 음악교육에 대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음악교육, 나아가 예술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한다.

음악교육이 수여자들의 삶을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기에 필요성과 가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적 사고와 표현, 나아가 문화예술의 향유는 근본적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게 한다. 그렇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음악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은 의의가 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음악교육의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악교육 분야에서의 교육 형평성 달성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간다의 경우, 음악이 필수교과가 아니므로 음악교육 콘텐츠 보급에 앞서 음악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간다에서 음악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들이 삶 속에서 즐기고 있는 음악 활동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음악을 ‘교육’한다는 것은 결코 도와시 되어서는 안 되는, 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의 균력을 기르는 중요한 부분임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음악 교육 콘텐츠는 교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하고 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실행하도록 돋는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음악교육 콘텐츠는 우선 우간다 내 초등학교 수업과 예비교사 교육 및 교사 연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외에 방과 후 수업, 보육 시설, 장애인을 위한 학교, 교육 기회가 없었던 여성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수업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우간다 이외의 여러 국가 및 교육 소외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사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활동은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남긴다. 특히 현직 교사는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며 교육적 재능 기부의 기회를 얻게 되고, 제3세계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천적 경험을 교육 현장에 환류할 수 있으며, 이로써 세계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배움으로 확장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국가적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음악교육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실천이 확산되고, 음악 교육계에서 교육·사회공동체에의 긍정적인 기여를 위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H. J., Park, H. W., Suh, Y. W., Yoon, J. H., Park, H. B., Cho, H. S., Hwang, J. H., Shin, Y. J., & Park, S. H. (2020). *The research on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Choi, J. H., Lee, Y., Yu, Y. J., & Ahn, T. S. (2010). A study about the function of culture welfare programs for dissolving social exclusion about the social vulnerable classes - A qualitative research focused on the culture welfare practitioner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1), 291-316.
- Choi, J. K. (2021). Tasks of music education for post-digital era: Focusing on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about technology and ar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4), 175-197.
- IMF (2023). GDP per capita, current prices. Retrieved July 30, 2023, from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
- Jang, H. S. (2011). *The state of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and the challenges of education cooperation: Uganda* (RRM2011-32-8).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Jeon, Y. E. (2019). Study of Korea's education support strategy versus Uganda's by analyzing trends in support from other donors in Uganda. *Development and Issues*, 50, 1-65.
- Katongole, G. (2020). Music education, growing but very challenging sector. Retrieved January 30, 2023, from <https://www.monitor.co.ug/uganda/news/education/music-education-growing-but-very-challenging-sector-3242230?view=htmlamp>
- Kigozi, B. (2008). An evaluation of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n Buganda: A way forward. Doctoral diss., University of Pretoria.
- Kim, S. H. (2020). Suggestions o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ducational contents

- as overseas aid activities. *Journal of Public Social Research*, 10(3), 215-242.
- _____. (2022). Significance of Ugandan education conten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ject.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33(2), 11-28.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6).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Seoul: Author.
- KODA (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16). *Ugand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KODA (2021). *The 3rd comprehensive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1-2025)*.
- Lee, H. S. (2022). A study on the game music class utilizing percuss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1), 71-97.
- Lee, M. J. (2013). A study on teachers usage for ODA in education field of Korea.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 Y. H. (2020).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music: Focused on cultural ODA & cultural diversity.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J. W. (2022). Activation strategy for music teacher's competency enhancement project throug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Focused on cases of Rwanda.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6(6), 209-223.
- Song, J. J. (2021). Analysis of body movement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3), 99-132.
- Suh, E. Y. (2019). Research of sustainable educational ODA of Uganda: In terms of examples using the Scientific Technology.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UGANDA MoES (2010). *Regulations and syllabuses: Uganda certificate of education*.